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⑤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3 所以然者 止乃伏結之初門 觀亦斷惑之正要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止觀' 법문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청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중생을 결박하는 번뇌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結』은 중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고통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결사번뇌(結使)라고 한다. 즉 삼계내 범부의 번뇌인 견사결(見思結), 삼계 밖에서 소승인이 일으키는 진사결(塵思結)이 있는데, 이는 지말번뇌이다. 대승보살이 일으키는 근본번뇌인 무명결(無明結)이 세 종류의 근본·지말번뇌를 총체적으로 하나인 의미로 묶어 '結'이라고 한다.
범부 중생은 이 세 종류 번뇌 모두에 결박당하여 전혀 자유롭지 못하므로 중일토록 감각하고 애매모호하여 시끄러운 번뇌가 쉬지 않는다.

망상 일어난 자리가 진심자리 망상밖서 진심 구하지마라

같은 번뇌를 어떻게 다스려야만 하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 수행공부를 통해서 이상의 세 종류의 번뇌를 조복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 수행을 통해서서 조복만 받을 수 있을 뿐 실제로는 그 근본뿌리까지 단절하지는 못한다. 이는 마치 풀을 뽑을 때 뿌리를 뽑았을 때 풀이 자라지 못하지만 뿌리를 뽑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풀만 들어내면 언제라도 그 풀이 되살아나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므로 '지' 수행문은 번뇌를 항복받는 초보에 불과할 뿐이다.

다음으로 '관'을 설명해보자.
'관'은 '지'를 통해 번뇌를 그린 자리에서 다시 올바른 지혜 관찰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 마음속에 깊이 박힌 번뇌의 근본뿌리를 끊어지지 않고자 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지혜로 제법실상의 이치를 정확히 관찰하고 그 근원뿌리까지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비유하면 날카로운 칼로 땅속에서 잠복해 있는 풀뿌리까지 절단하여 영원히 거둬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므로 '관' 수행은 번뇌를 끊어지지 않고 진여를 증득하는 올바른 요점이자 최초의 수행방편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를 통해서 우선 번뇌를 조복 받아야만 하고 지말번뇌의 조복이 이미 끝났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관 수행을 일으켜 반드시 지말번뇌를 일으키는 근본무명 번뇌의 뿌리까지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관'을 수행하는 목적은 번뇌를 끊고 생사를 초월하여 보리를 성취하는 데에 있다. '지관' 법문이야말로 모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천태 일개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어떤 종파의 수행을 막론하고 그들 모두는 번뇌를 끊고 진여를 증득하

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를 두고 모든 수행의 '정요(正要)'가 '지관'이라고 했을 것이다.

止則愛養心識之善資 觀則策發神解之妙術
여기서는 지관수행을 행했을 때 그에 따라 일어나는 '지관'의 오묘한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을 아끼고 기르려 한다면 '지' 수행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신령한 견해가 일어나게 하려면 '관' 수행을 버리면 도달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평소 '지관'을 수행하지 않을 때 마음은 마치 보는 대로 흉내 내기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하루 종일 망상만이 어지럽게 분분하다.

사랑분별 끊고 올바른 지혜로 관조해야 통밀이 썩 빠지듯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그러나 '지' 수행을 닦고 나면 망상은 정화되고 의식은 분명해져 탁한 생각은 맑아지고 마음은 청정해진다. 그러므로 '지' 수행은 내적으로 마음을 조화하고 기르는데 장점이 있고 신령한 본성이 발현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다.

앞에서 이미 '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잡념을 잠재우고 조복 받았으며, 다시 '관' 수행을 일으켜 회광반조하는 공부로 제법실상을 환하게 관찰하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부를 계속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신통묘해와 지혜광명이 출현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 수행은 산만하게 움직이는 산란심을 억제하고, '관' 수행은 내 마음 속에 어두운 구석을 관찰한다. 다시 말해서 '지'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 집착을 놓아버리고 '관' 수행은 번뇌를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올바른 지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지관'을 병행해야만 우리 마음을 잘 기를 수 있고, 다시 신령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망상의 마음이 바로 생사를 일으키는 근본이다. 때문에 영가(永嘉) 스님은 이를 두고 "공덕을 떨어내고 법신을 성취한 바람을 소멸하는 그 모두가 망상을 따라 일어난다" 하였다.

원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역시 망상을 떠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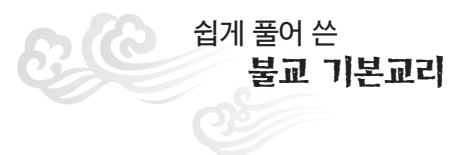
이 같은 이유로 천태종에선 최초로 수행을 시작할 때 제6의식, 즉 현재 일어나는 망상에서 시작하라고 가르친다. 그 의도는 생멸에서 생멸망상이 본래 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생멸이 끊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려 함인데, 요컨대 망상 속에서 진심을 구하고, 망상 밖에서 따로 존재하는 진심을 구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들 중생은 최초엔 완전한 진심상태에서 출연히 망상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지관'을 수행한다면 전체의 망상에서 전체의 진심에 도달할 수 있다. 가령 망상을 떠나서 진심을 별개의 모습으로 따로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파도를 버리고 물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 원래 물이듯이 망상 일어나는 자리가 본래 진심자리이다.

망상에서 사랑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면밀한 지혜로 관조하여 그 수행을 오래도록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마치 통밀이 썩 빠지듯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러한 시절을 두고 온 대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허공마저 분쇄되어 신령한 광채가 절대 홀로 빛나고 육근과 육신의 구속에서 아득히 벗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이리하기 때문에 '지' 수행이 아니면 산란심을 조복 받을 수 없고 '관' 수행이 아니면 신령한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관' 두 수행법이야말로 상좌관계를 이루어 피차가 서로에게 바탕이 되고 보조역할을 하여 상호간에 동시적인 관계를 이루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올바른 중도수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 중암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業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 ①

일체중생의 모든 고통은 그들의 행위, 즉 신구의 삼업이 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모든 유정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에 따른 과보의 연속, 즉 업과(業果)가 상속유전(相續流轉)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공작(工作)의 의미이며, '과'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누린다(受用)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신구의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공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업과의 상속순환인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 어느 일정한 행위를 하는 형태가 그의 주된 업(職業)이며, 그 행위에 따라 생산하고 수확은 거두는 모습이 업에 따른 과보입니다.

유정들은 사는 동안 행했던 일정한 행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확을 거둬오므로 그가 처

모든 유정은 업과의 상속유전 모습일뿐

즐거움·괴로움, 행위의 선악따른 결과

한 상황만큼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로써 그의 생명이 일정기간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현재의 생명이 유지되면 다음의 행위를 일으키게 되고 다시 그 행위를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과보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같이 왕복 순환하면서 그 생명이 무궁하게 인과관계로 상속해 갑니다.

따라서 그 과보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바로 그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선악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근검했다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반드시 선량(善良)의 즐거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게으르고 교만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보는 반드시 괴로움과 파괴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생활 모습의 차이점은 선업이었느냐, 악업이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다른 결과인 것입니다. 평소 선업을 행했다면 그의 인격도 지혜롭게 형성되어 허망함이 없이 진실한 품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행위가 악업의 조작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살생[殺]·도적질[盜]·음행[婬]·탐貪·진瞋·치(癡) 등 악한 모습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과보가 이러하다면 미래의 과보도 이 두 갈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선업 또는 악업인가에 따라서 내생엔 인간 천상이나 그 반대인 지옥이나 아귀의 악도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처럼 모든 결과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행했던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韓國佛教圓光宗

봉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및 호국영령 선망 부모 천도 합동 수륙 대법회 행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운이 융창하기를 발원하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전국의 한국불교원광종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륙 대 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륙법회는 불성을 가진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각가지 업에 의해 이승을 떠나 바다와 육지에 떠도는 고힌을 천도함으로써 일체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 대비심을 앙양하고자 합니다.

국가는 부강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도록 염원하는 수륙 대법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자손만대에 부귀영화, 수명장수하시고, 염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 일시 : 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음, 9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특설 법회장

■ 행사내용

- 1. 식전행사 : 불자 가수 연예인 공연 (김홍국, 현당, 금사향, 김활선, 신선호 등 불자가수)
- 2. 수륙 천도 대법회
- 3. 민요 및 풍물패 공연

■ 문의 :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1-3번지 / 02)802-1740

■ 주최 :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 주관 : 한국불교원광종 충남교구총무원 ■ 협찬 : 불자가수협회

한국불교원광종 임원

종 정 능허 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총 의 회 의 장 선진	교 육 원 장 법민
규 정 원 장 법성	포 교 원 장 경산
문 화 원 장 법원	기 획 부 장 도현
총 무 부 장 진공	사 회 부 장 도각
사 회 부 장 도각	문 화 부 장 도성
포 교 국 장 혜암	문 화 국 장 혜지
총정예경실장 도연	
강원도총무원장 진각	경남부총무원장 혜안
경주총무원장 청암	전남총무원장 경진
충남총무원장 보선	